

사랑할 권리와 사랑받을 의무

채은련(율리아)/모현 호스피스 봉사자

스 가쁘리 만큼 많은 분들을 떠나 보내야 했던, 4월이 엇그제 같은 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진한 푸르름으로 가는 이 생명의 계절에도 저희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들과의 만남에 설 틈이 없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분들과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어찌면 우리의 십자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봉사자라고 해서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친절함에 대한 반응이 커다란 거부감으로 다가올 때, 다시는 다가서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부감이 어느 순간부터 작은 기다림,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으로 변하고 달렸던 마음과 영혼까지도 활짝 열리는 것을 볼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년 전 이맘때쯤 폐암 말기였던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믿는 것은 오직 자신 뿐, 결코 하느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해드리는데도 싫어하셔서 조용히 앉아 언짢게 툭툭 내뱉는 듯한 이야기를 듣고 한두 마디씩 거드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거칠었던 말투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예의를 지키려고도 했으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려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난폭함 때문에 떠나가 버린 가족들에 대한 증오심을 떨치고 미안한 마음으로 속죄를 하는 듯했습니다. 하느님과 신앙에 관한 대화가 오고갔으며 얼마 후에는 대세를 받으셨고 일주일 후에 하느님께 돌아갔습니다. 저의 몸이 약해 보인다면 자신이 겪는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저를 걱정해 주고 임종 때에는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인간은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 받을 의무가 있다”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봉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 좌절의 순간을 하느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때, 고통받는 한 영혼이 평화 속에 잠들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받을 의무가 있는 많은 분들이 사랑의 권리를 행사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